

# 통일후 대만 주민 자가용으로 북경까지 올 수 있다



2025년 6월 13일, 하문-금문대교(하문 구간) 해상 교량 대규모 조립화 시공 현장. 하문-금문대교(하문 구간) 프로젝트의 주선 길이는 약 17.3 킬로미터로 개통후 하문 본도와 하문 상안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가장 편리한 통로로 될 전망이다. / 신화넷

3월 25일,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에서 개최한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최근 대만 민간단체가 하문-금문대교 하문 구간과 하문 상안(翔安) 공항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이 두 공사의 빠른 진척에 감탄하며 대륙의 기반시설 건설 능력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우리는 2025년 10월 대륙이 제시한 통일후 대만이 누릴 수 있는 '7가지 더 나은 점'을 주목했는데 그중에는 '평화통일후 더 강력한 조국을 뒤에 업고 대만 기반시설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변인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변인 주봉련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통일후 대륙의 강력한 기반시설 건설 능력은 대만 기반시설의 개선과 업그레이드에 든든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대만지역의 교통, 자원, 농림, 수리, 도시 재생 등 기

반시설이 다시 세워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며 그만큼 대만 동포들의 생활도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예를 들면 환도 고속철도를 신속하게 완공하도록 돕고 본섬의 동서를 잇는 고속철도를 더 많이 건설함으로써 량안 기반시설의 연계를 점차 현실화해나갈 것이다. 또 오래 동안 연구해온 해협 고속도로를 함께 건설하여 장애물을 길로 만든다면 대만 주민들은 섬에서 출발해 경대고속도로를 따라 자가용으로 북경까지 와서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평화통일은 대만의 기반시설과 신형의 기반시설이 새롭게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주봉련은 대만 동포들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듯 량안의 평화통일을 추구하여 자기가 일하고 생활하는 터전을 더욱 원활하고 편리하며 아름답게 가꾸어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인민넷-조문판

##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추대



3월 22일 회의에서 김정은은 또다시 조선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 신화넷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2일 평양에서 열린 제15기 첫 국정활동으로 되는 제1차 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을 조선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추대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 새 임기 국무위원회가 선거, 산생되었다. 조용원이 제1 부위원장으로, 박태성이 부위원장으로 선거되었다. 회의는 총 687명의 의원을 선거

했다. 조용원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형식, 리선권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거되었다. 회의에서는 내각 성원들을 임명하였으며 박태성이 내각 총리로 선거되었다. 박태성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내각 성원들을 제의하였으며 내각 성원들은 전원 찬성으로 임명되었다. / 신화넷

### 중국 대표

## 팔레스티나 관련 '두 국가 해결안' 리행 위한 조치 촉구



2025년 9월 23일, 요르단강 서안 나블루스 시민들이 팔레스티나 지도자 아라파트와 압바스의 초상화를 흔들며 축하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이날 요르단강 서안 여러 도시에서도 여러 국가가 팔레스티나를 국가로 승인한 것을 기념하고 가자지구 주민들을 지지하는 집회와 행진이 잇달아 열렸다. / 신화넷

유엔 주재 중국 상임대표 부총은 3월 24일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열린 팔레스티나 문제 공개회의에서 국제사회는 팔레스티나 문제가 다시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두 국가 해결안'을 리행하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팔레스티나가 조속히 독립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은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총은 현재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

확산되고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지역 안정과 세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팔레스티나 문제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엄중한 정세에 직면하여 국제사회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팔레스티나 문제가 조속히 전면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해결을 보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총은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

을 감행해 600명이 넘는 가자 주민이 숨졌다고 말했다. 최근 이스라엘은 인도적 물자 반입 제한을 강화하고 라파국경검문소를 여러차례 폐쇄하면서 가자의 인도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는 가자 정세는 국제적 도의의 마지노선과 직결된 문제로 중국은 관계국, 특히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전면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완전하고 지속적인 휴전을 이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은 국제인도법상 의무를 리

행하고 검문소를 완전히 개방하며 인도적 물자 반입 제한을 취소하고 인도적 기관, 특히 유엔 팔레스티나 난민 구호 및 사업 기구에 대한 공격과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총은 점령국이 한동안 정착촌 정책을 가속화하고 정착촌 활동을 확대해 지난 1년 동안 요르단강 서안에서 3만 6,000명이 넘는 팔레스티나인들이 집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정착민 폭력 사건도 급증해 많은 팔레스티나 민간인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는 정착촌 활동은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제2334호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은 규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스라엘은 정착촌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착민 폭력을 억제하며 민간인을 공격한 모든 사건을 조사해 책임을 묻고 유죄를 면해주는 관행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총은 팔레스티나 문제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합리적인 방안, 즉 '두 국가 해결안'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외의 어떤 방식이나 새로운 기제를 세우더라도 '팔레스티나인에 의한 팔레스티나 관리' 원칙을 지키고 팔레스티나인들의 의지를 존중하며 '두 국가 해결안'을 추진해야지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관련국은 안보리 결의 제2803호 요구에 따라 안보리에 관련 상황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은 모두 팔레스티나 국가의 분리할 수 없는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사회는 팔레스티나 령토를 병합하려는 모든 시도와 '두 국가 해결안'의 기반을 훼손하는 모든 일방적 행동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화넷

### 김정은 :

## 조선, 핵 보유국 지위 계속 공고히 다질 것

조선중앙통신이 3월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시정연설 시 조선은 핵 보

유국 지위를 계속 공고히 다질 것이라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 조선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

김정은은 조선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視為)하고 가장 명백한 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조선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

나 사소한 주춤 없이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조선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리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 한국

## 일본의 역사 외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강력 항의

한국 외교부는 24일 성명을 발표, 일본정부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령토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서 한국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고유의 령토임이 분명하다면서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한 '역지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측의 어떤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일부 일본 교과서에 실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로동자 관련 외곡된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 문제에 대해 이미 밝힌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따라 역사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 인민넷-조문판

# 朝夕奔梦

友誠敬愛法公平自和文民富  
善信业国治正等由谐明主强